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5

“우리도 함께 뛰다”

일등 병원의 꿈 싣고 건강 레이스

■ 광주 수완병원

“모범병원, 일등병원의 꿈을 싣고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광주 수완병원 임직원 일동이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을 통해 직원들의 화합과 병원의 발전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1월 3일 개원한 광주 수완병원은 이번 마라톤 대회 참석을 중요한 개원기념 행사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개원한지 채 두 달이 안돼 아직 사이가 서먹한 직원들을 한데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새로 생긴 병원을 지역에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완병원 임직원들이 3월1일 화합과 발전을 위한 건강한 레이스를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80명상 갖춰 의료서비스

수완병원은 180명상 규모의 지하 1층·지상 7층의 신축병원, 10개과(정형외과·내과·흉부외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치과·한방과)의 진료가 가능하다. 또 족부관련 진료와 복강경시술, 맘모톰시술, 종합검진센터, 최신 CT·MRI 기계를 갖춰 수완지구를 포함한 인근 광산구의 새로운 의료서비스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수완 병원은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만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도 펼치겠다는 각

오다. 개원식 당일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 327포(1092만원 상당)를 지난 1월 광산구청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통해 불우이웃에 전달했다. 또 ‘희망 2011 나눔운동’과 관련해 광산구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완병원은 또 시민들의 건강한 마라톤 축제를 위해 대회 당일 직원을 비롯, 응급상황을 대비한 앰블런스 2대(의사 1명·간호사 2명)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완병원 직원들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진절하고 확실한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 ▲항상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것 ▲직원들의 협력과 협동을 통한 일 잘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송용국 종합검진실장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마라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인들답게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며 “병원 직원이 건강해야 환자들도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솔선수범의 의식으로 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소외이웃에도 사랑 나눔

고길석 대표의장은 “직원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병원보다 더 진절하고,

더 환자를 생각하는 모범의식을 보이고 있다”며 “마라톤 참석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식을 더 확고히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국 종합검진실장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마라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인들답게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며 “병원 직원이 건강해야 환자들도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솔선수범의 의식으로 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피겨 여왕 김연아
14개월째
세계랭킹 1위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올 시즌 경기에 나서지 않고도 14개월째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23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최근 끝난 4대륙 선수권대회 결과를 반영해 발표한 여자 싱글 순위에서 김연아는 4024점으로 스즈키 아카코(일본·4010점)를 제치고 선두 자리를 지켰다.
올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한 차례 우승한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가 3875점으로 3위에 올랐고, 안도 미키(일본)가 3760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아사다 마오(일본)는 이번 시즌의 부진을 반영해 3418점으로 6위에 머물렀다.
2009년 12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하면서 1위 자리를 되찾은 김연아는 14개월째 선두를 지켰다.
김연아는 올 시즌 들어 한 차례도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 별다른 랭킹 포인트가 없었지만, 지난 시즌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그랑프리 파이널, 그랑프리 시리즈 등을 짝쓸이하면서 2400점을 쌓아 놓은 덕에 다른 선수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ISU 랭킹은 최근 세 시즌 동안 참가한 대회에 동계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ISU 그랑프리 시리즈 및 파이널, 국제초창대회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눈 뒤 각 부문에서 얻은 최고 성적과 차상위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해 매긴 순위다.
최근의 두 시즌 성적은 포인트 점수에 100%, 2년 전 시즌 성적은 70% 반영된다.
/연합뉴스

헉! 골잡이 지동원 부상

K리그 전반기 개막전 결장

국가대표 공격수 지동원(20·전남 드래곤즈)이 무릎 부상으로 K리그 개막전에 오르지 못한다.
지동원은 지난 20일 산프레체 히로시마와의 전지훈련 마지막 연습경기 때 수비수에 게 깊은 태클을 당해 오른쪽 무릎 안쪽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서울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치료와 재활에 3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3월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개막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지동원은 “지동원이 현재 광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타박상이 심해 2~3주 정도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3일 포항과의 홈 개막전 이후를 복귀 시점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중연 회장, 동아시아 축구계도 이끈다

EAFF 회장 내달 취임

조중연(65)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다음 달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수장에 오른다.
조중연 축구협회장은 2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을 찾은 오구라 준지(73) EAFF 회장 겸 일본축구협회장을 만나 연맹 회장 교체에 따른 사무국 이전과 업무 분장 등을 협의했다.
조 회장은 오구라 회장의 뒤를 이어 내달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EAFF 총회 때 새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현재 EAFF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괌, 북마리아나제도(준회원) 등 10개국이 가입돼 있고 회장



국은 중국과 일본, 한국이 돌아가며 맡는다.
연맹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하지만 내년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일정으로 동아시아선수권대회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대회가 개최되는 2013년 7월까지 한국이 회장국을 유지한다.
EAFF 사무국은 한국에 설치되고 연맹 회장과 사무총장은 대한축구협회에 맡기지만 일본의 광고회사 텐쓰가 연맹의 재정·회계 파트너로 계속 참가한다.
/연합뉴스

FIFA, 브라질 월드컵 대륙별 출전국 수 내달 결정

2014 브라질 월드컵축구대회 대륙별 본선 출전국 수가 다음 달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때는 개최국이 확보한 한 장을 제외하고 31장의 본선 출전권을 유럽 13장, 아프리카 5장, 아시아 및 남미 각 4.5장, 북중미-카리브해 3.5장, 오세아니아 0.5장으로 나눴다.
대륙별 예선을 치르고 나서 아시아 5위-오세아니아 1위, 남미 5위-북중미 4위가 플레이오프권을 벌여 최종 본선 출전권의 주인을 가렸다. 월드컵 본선출전권 배분 결정은 대륙별 이해관계 때문에 FIFA로서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연합뉴스

모하메드 빈 할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은 아시아에는 최소 4.5장의 본선 출전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오세아니아는 온전한 한 장의 본선 출전권을 원하고 있다.
또 강자들이 몰린 남미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북중미-카리브해연맹(CONCACAF)도 3.5장이 아닌 4장의 본선 출전권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FIFA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게다가 남아공이 대회를 개최해 6개국이 나 월드컵 본선에 참가했던 아프리카 대륙에는 이전 대회처럼 많아야 5장의 출전권이 할당될 것으로 보여 나머지 한 장의 행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함께 잘 사는 북구건설 우리가 해낼 것”

■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

“다함께 잘 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달린다.”
광주일보 제46회 3·1절 전국마라톤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광주시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회장 정양조 세무과 구세계장)의 설립 슬로건이다.
동호회는 2005년 3월 22일 직원들의 친목과 구정 홍보를 위해 2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회원 수가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친목 다지며 구정 홍보

동호회 회원들은 이번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동호회뿐만 아니라 부부 공무원인 김광렬(47·행정 7급)·고경미(여·40)씨를 포함해 이희정(여·39·사회 7급)씨와 남편 서상길(42)씨 등 회원 가족 등도 대거 신청서를 내면서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의 전체 참가 인원은 80명에 이른다.
총무 이희정씨는 “처음에는 건강 관리 차원에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회



광주시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23일 북구 용봉동 청사 앞 광장에서 ‘제46회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원들 모두 마라톤 마니아가 됐다”면서 “대회 참가를 통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회원들이 함께 달리면서 화합도 다지는 등 직장 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직장내 동호회지만 회원들의 마라톤 열정은 어느 동호회 못지 않다.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정기훈

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회원들은 북구 일곡동에서 담양군 수북면 면사무소 앞 매주 화·토요일 정기훈련
력을 좋다. 회원들 중에는 양승필(56·행정 5급)씨·정양조(56·행정 6급)·이철행(40·행정 7급)씨 등 6명의 회원이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하며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양조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장은 “우리 동호회가 북구 주민을 위한 건강 지킴이로 거듭날 때까지 쉬없이 달리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매주 화·토요일 정기훈련

까지 이어지는 왕복 30km씩을 달리며 마라톤 실력을 키우고 있다.
마라톤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회원들의 실

광주FC ‘2011 희망의 골’ 쏜다

1골 당 10만원씩 적립. 저소득층 꿈나무 지원

광주FC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골을 선사한다.
K리그 데뷔를 앞둔 광주 FC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드리블’ 캠페인을 갖고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펼친

다.
광주 오는 3월5일 대구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매경기 당 1골을 기록할 때마다 10만원씩을 적립·후원하고, 축구용품과 장학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는 또 선수와 아이들을 1대1로 연결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축구교육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희망의 드리블’ 캠페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

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한다.
광주 관계자는 “꿈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같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축구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와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27일 서구 화정동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리는 ‘시민과 함께 광주FC 페스티벌’에서 공식협약을 맺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